

47년째 도내 여성 문인의 등용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여성백일장 성료... 장원 산문 김진옥·운문 이지현 포함 총 14명 당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운애)는 지난 10월 31일 도내 거주 여성(결혼 이민 여성 포함)을 대상으로 '제47회 전북여성백일장'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여성백일장은 현장에서 선정된 글제(시제)에 따라 운문, 산문 2개 부문에서 한 부문을 선택해 글을 짓는 순수 문예 백일장으로 1973년부터 시작돼 47년째 매년 도내 여성 문인들의 등용문이 돼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이어 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수상자들의 모임인 '글벗' 회원들의 시낭송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을 격려했고, 소재호 작가의 글쓰기 특강과 함께 현장 글제(시제) 발표와 함께 시작됐다. '고향 길', '국화', '깃발', '호수' 4가지 글제(시제)로 도내 130여명의 참가자들은 평소 애용하고 있는 글 솜씨를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됐다.

당일 심사를 거쳐 총 14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 산문 부문 장원에는 김진옥(59세)씨의 '행복한 고향길', 차상에 김연숙(58세) '국화꽃 향기 맡으며', 김순옥(67세) '깃발' 차하에는 박정임(68세) '깃발', 이복주(77세) '고향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운문 부문 장원에는 이지현(47세)씨의 '깃발'이 선정됐고 차상에는 임순화(53세) '깃발', 김선미(55세) '고향길', 차하에는 이혜미(28세) '국화', 서미아(50세) '깃발'이 선정됐다. 특별상으로는 결혼 이민 여성의 한국어 이해 정도를 심사해 스키미(일본, 36세)씨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지난 10월 31일 '제47회 전북여성백일장'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를 포함한 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소재호 시인은 "작품에 기울이는 열성도와 진중함이 매우 돋보였고 글쓰기에 도전하는 참여자 수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작품마다 편차는 있었으나 선정된 개인의 작품마다 문학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작품성이 좋았던 점"을 선정소감으로 밝며, "특히, 결혼 이주여성으로서 한국 가족문화 이해와 여성으로서의 심경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으로 글쓰기를 통해 백일장의 본질을 잘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 수상자에게는 각각 장원 100만원, 차상 50만원, 차하 30만원, 특별상 10만원으로 총 56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각 부문 입상 작품은 동인지에 게재 되고, 전북여성백일장 수상자들의 모임인 '글벗' 회원으로 함께 습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매월 전문 강사를 초청해 참석지도와 매년 동인지를 발간하는 등 문인으로서의 역할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다.

시상식은 6일 오전 11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1층 소소담(談)에서 열렸다. /정은성 기자

전북문화의집, 22일까지 '리사이클링 페이퍼 아트전'

전북문화의집은 생활문화센터 전시공간 갤러리 소소에서 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이진화 페이퍼 아티스트의 '리사이클링 페이퍼 아트(랩아트)'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있지만, 평소에 쉽게 지나치는 환경문제를 예술로써 풀어내고 페이퍼 아트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전시에는 종이문화연구소 대표로 재직 중인 이진화 페이퍼 아티스트가 참여했다.

그는 꾸준한 노력과 활동 끝에 종이접기 마스터 자격증을 비롯해 각종 공예 자격증 40여 개를 취득했으며, 전북 공예대전 특별상과 무형문화유산 시연 장려상 등 탄탄한 경력을 쌓고 있다.

도서관에서 훼손되고 오래돼 버려지는 책들이 연간 62만여 권이 된다는 사실을 접한 이진화 아티스트는 예술도 환경문제를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해 버려진 책들을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버려진 종이와 폐도서를 재활용해 예술작품으로 탄생시켰다.

이진화 페이퍼 아티스트는 "종이 재료를 다양한 예술작품으로 창조해 리사이클링 아트를 전주의 새로운 문화영역으로 발전시키고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문화관광재단, 15일까지 대표이사 공개 모집

재단법인 전북문화관광재단은 15일까지 새로운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단 출범과 동시에 4년간 재단을 이끌어 온 이병천 대표이사의 임기가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재단은 내년 1월부터 재단을 이끌 차기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에 나섰다.

직무수행요건은 문화예술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재단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수 있고 문화예술 문화관광 경영관련 분야 전문가로 조직을 화합하고 경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친화력을 가진 사람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직접 방문(전북예술회관 3층)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면 된다. 대표이사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전형을 통해 임원후보추천이 진행되며, 이사회 의결로 선정해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전북도지사가 최종 임명한다.

재단의 업무를 총괄해 책임경영과 지휘·감독, 이사장 직무대행 등을 수행하는 차기 대표이사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 공고를 확인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063-230-7412)로 문의하면 된다. /뉴시스

장수문화원, 문화예술인의 날 행사 개최... 전시·체험 등 다채

장수문화원에서는 오는 11월 13일에 제12회 장수 문화예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장수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학교 강좌 프로그램인 민화 그리기, 가죽공예, 도자기 공예 작품들의 전시와 체험, 한국무용 발표, 장수 빛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문권철 음악감독)의 공연, 장수 관내에서 활동 중인 사물놀이 공연과 기념식 및 시상식으로 이루어진다. 장수군수상에는 장수깃절놀이 열두달 상모

단원들이 수여할 예정이며, 전북문화원연합회 장상에는 조질성 생활예술 동호회 회장과 문화원장상에는 고대봉 향토문화연구회 회장이 공로상을 받게 된다.

또한 초청공연으로 순창문화원이 육성하고 있는 대취타공연과, 해금(장지연) 민요(김도연) 초청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올해 발간한 장수산하를 비롯 그동안 발간한 책들을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날 전북문화원연합회 나종우 회장을 비롯 14개시군 문화원장과 직원들의 초대를 통해 교류하고 장수지역 문화를 알릴 예정이다.

장수문화원 권승근 원장은 제12회 장수 문화예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작품전시와 초청공연 그리고 타문화원과의 교류를 통해 장수문화를 알리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지역주민들과 문화예술로 소통하고 함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문화학교 강좌 수강생 작품전시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한누리전당 가람관 전시실에서 전시 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 세대가 공감하는 아름다운 비극

정읍시예술회관서 23일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불멸의 명작 '로미오와 줄리엣'이 오는 23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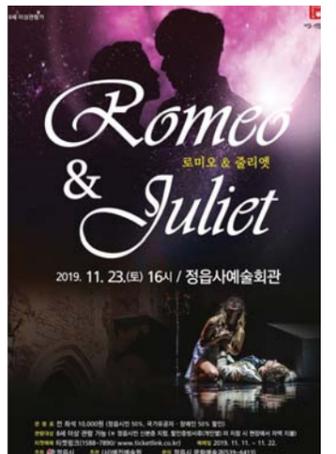
이번 공연은 한국과 폴란드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두 나라가 공동으로 협업 제작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두 나라의 사회 문화적인 특성에 맞춰 현대적인 접근과 표현으로 관객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재해석한 무용극이다. 지난 9월 폴란드 현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과 관심 속에서 열린 개막 공연에 이어 서울과 안성 등 국내 순회공연을 펼치는 중이다.

이번 작품은 전 세대가 공감하는 가장 아름다운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을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보나 마리아 오르첼로브스카' 감독이 재해석했다.

여기에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카로렌스 시어터의 수석 무용수들의 펼치는 환상적인 무용극이 더해져 정읍시민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관객들은 사랑과 운명이 초래한 비극, 그 안에서 상처받고 희생된 주인공들과의 감정이입을 통해 화해와 소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해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공연은 8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전 좌석 1만 원이다.

정읍시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입장권은 티켓링크(☎1588-7890)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예매할 수 있고, 자세한 공연 정보는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